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2001년도 표어 ⊗

임하소서 성령이여(행1:8)

⊗ 행동지침 ⊗

- 1. 부흥과 성장이 있는 교회가 되도록 한다.
- 2. 민족과 국가를 위해 기도한다.
- 3. 일치와 증거가 있는 삶을 산다.
- 4. 내가 먼저 변하고 세상을 변화시킨다.

† 발행인 : 이 중 윤 †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02) 558-2107 www.seoulchurch.or.kr

오늘 2002년도 제직 및 교구일꾼 임명식

오늘 주일예배 시에 2002년도 교회의 제직 및 교구살림을 이끌 교구일꾼을 임명하는 임명식을 갖는다. 오늘 임명받는 제직(서리집사)은 남자 333명 여자 439명 등 총 772명이며 교구일꾼은 각 교구의 형편에 맞게 조정되어 있다.

명받아 교회에 덕을 세우고 개인 신앙의 성숙을 이루는 계기가 되도록 한다. 제직 및 교구일꾼의 명단은 후보에 간지로 삽입되어 있으니 참고 바란다. 한편 교구총회는 오늘 12월 2일(주) 3부예배 후 본당 1층에서 개최된다.

2002년도 교회 살림의 중심이 될 제직 및 교구일꾼은 먼저 기도와 감사함으로 임

성탄절에 10년사 발간된다

우리교회의 지난 10년간의 발자취를 더듬어 정리한 서울교회 10년사가 탈고되어 마지막 교정 및 감수 작업에 들어갔다. 본래 8월30일자 현재를 기준으로 집필했으나 감수과정에서 10주년행사를 포함시켜 명실공히 10년사를 출판하기로 하여 제도를 수정하게 되었다.

한 획을 긋는 자리가 되어왔다. 이러한 중요한 발자취를 남긴 우리교회의 10년사의 정확한 정리는 자라나는 신세대에게 우리 1세대들의 신앙의 모범을 전하는 증거와 교훈이 될 것이며 계속하여 한국교계를 선도하여갈 서울교회의 지표를 설정하는 귀중한 자료가 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교회는 더욱 철저한 교정과 감수작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감수가 끝난 10년사는 다가오는 성탄절을 즈음하여 발간될 예정이다.

오직 눈물과 기도 그리고 헌신으로 세워진 교회이기에 더욱 사랑과 감사가 넘쳐나는 모든 성도의 공통 분모이며 또한 우리의 10년간 발자취는 한국교회사의 중요

찬양예배 시 새가족 환영회

오늘 저녁 찬양예배시간에 11월중 등록한 새가족을 환영하는 새 가족 환영회를 갖는다. 11월중에 등록된 새가족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 강호준 구기임 김경미 김도훈 김민철 김봉구 김봉숙 김성욱 김소영 김수경 김수옥 김연섭김연화 김영환 김용욱 김인호 김재진 김종필 김준한 김해숙 김혜영 김효순 김희자 남점미 노순화 박도진 박소영 박용원 박장주 박장중 박종규 박중숙 박희동 서명조 서승희 성행주 손귀란 송혜미자 신순호 안영옥 오경미 오경식 오종원 유건호 유기찬 유윤지 유충우 유환희 윤기순 윤용미 이경득 이동근 이명홍 이미영 이봉순 이석교 이정자 이종인 이종일 이지수 이하경 장용욱 전 신 전영이 정복근 정용수 정용택 정윤경 정은경 정주희 정해민 정효진 최숙자 최우전 최위춘 한 령 한용삼 홍성태 이상 78명
- 그리고 오늘 등록하신 분



지난주 우리교회는

- ① 주님의 피와 살을 나누며 - 추수감사예배 및 창립10주년 감사예배시에 있었던 성찬예식
- ② 신임장로들의 인수장면 - 죽도록 총성이겠습니까.

아담과 이브의 만남

강남노회 소속 젊은이들이 함께 모이는 '아담과 이브의 만남' 행사가 12월29일 오후3시에 본 교회에서 있게 된다.

이번의 행사는 신앙 안에서 젊은이들이 모여 교제하며 하나님께서 짝 지워 주시는 평생의 반려자를 만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만남의 시간이다.

이날 행사는 강남노회 소속의 젊은이 200여명이 참석하는 큰 행사가 될 예정이다. 참여를 바라는 젊은이들은 사무국과 교회 홈페이지로 신청 바란다.

권사회 총회 12월 5일(수)

살림 권사회(은퇴 권사회)와 권사회(사무 권사회) 총회가 12월5일(수) 수요일부 예배 후 웨스트민스터 홀에서 열리게 된다.

총회에서는 신·구 임원단의 교체식이 있게 된다. 각 권사회에서는 해당되는 성도들의 많은 출석을 요청하고 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다. (개역개정판 시 136장 1~3)

Give thanks to the Lord, for he is good. His love endures forever. Give thanks to the God of gods. His love endures forever. Give thanks to the Lord of lords: His love endures forever. (NIV Ps 136:1~3)



... 순례자 교회 사랑 캠페인 ...

† 여러분이 속해 있는 부서의 방은 깨끗히 청소되어 있습니까?

† 교회의 물품이 함부로 사용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12월 중 행사계획

- 12.2 (주) 교구일꾼 임명, 서리집사 임명, 교구총회, 새가족환영회
- 12.5 (수) 권사회 총회, 찬양대 임명(은빛 찬양대)
- 12.6 (목) 강남 전노회장, 신규임원 모임
- 12.9 (주) 찬양대원 임명
- 12.12(수) 찬양대원 임명(1부: 호산나 찬양대, 2부: 시온 찬양대)
- 12.16(주) 교사임명, 세례학습교육
- 12.18(화) 학습-세례문답
- 12.19(수) 학습-세례식
- 12.23(주) 성탄축하 찬양예배(할렐루야 찬양대)
- 12.24(월) 성탄 전야 행사- 교회학교
- 12.25(화) <성탄예배>
새벽기도회-임마누엘 찬양대
1부- 할렐루야 찬양대
- 12.30(주) 구제헌금, 특별제직회, 권사은퇴식, 장로안식년
- 12.31(월) 송구영신예배

이사야서 강해

고난의 종 메시아 (II)

(이사야 53장 7 - 9절)

우리는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를 짊어져야 할 때 어떻게든 지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닮기 원한다면 또 그것이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나의 십자가라면 조용히 침묵으로 그 고난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이중운 목사

천지의 주재시며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은 대리적 고난과 대속적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1. 하나님의 종은 어떻게 고난 받으셨나

(1) 메시아는 침묵하셨다

예수님의 왕적 침묵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입만 열면 자기 자랑을 하고 핑계하며 욕심을 채우려고 어떻게 하든지 다른 사람을 설득시키려고 하고 무엇보다도 역을 함을 하소연하기도 하며 다른 사람을 저주합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여"(7절).

예수님은 곤욕을 당하시면서도 핑계하지 않으셨습니다. 원통하고 억울하다고 하소연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조용히 침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말할 이유가 없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어떤 변명이나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주님은 침묵으로 고난을 감당하셨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를 짊어져야 할 때 어떻게든 지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닮기 원한다면 또 그것이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나의 십자가라면 조용히 침묵으로 그 고난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2) 메시아는 희생 제물이 되셨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았습니다. 십자가에 못박았다는 것은 예수님께 최악의 고통을 주었다는 말입니다. 빌라도는 가장 야만적이고 잔인한 사형제도를 통해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로마법대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잡아서 무자비한 매질로 잔인하게 때려서 거의 죽은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사 53:10).

예수님은 쇠붙이가 붙은 가죽채찍으로 심한 매질을 당하셨습니다. 별거벗긴 채 십자가에 매달아놓고도 이 매질은 계속되었습니다. 그의 어깨와 등에는 심한 상처가 났고 피가 흘렸습니다.

2시간 동안 로마 병정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난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비아냥거리며 흉포를 입히고 계속 때리고 가시로 왕관을 만들어 예수님의 머리에 씌우고 손에는 홀 대신 갈대를 잡으시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절을 하며 조롱과 멸시의 말을 퍼부었습니다(8절). 그리고 예수님이 혼자 지고 갈 수 없는 무거운

십자가 형틀을 그 어깨에 메고 가시도록 했습니다. 이미 기진맥진한 예수님으로서는 이 십자가를 끌고 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쓰러지셨을 때 구레네 사람 시몬으로 하여금 대신 십자가를 지도록 했습니다.

마침내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생명을 이렇게 희생 제물로 바침으로 하늘과 땅 사이를 연결하는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마 27:46).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 없는 의인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우리를 살리시려고 희생제물이 되셔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3) 메시아는 순종의 제물이 되셨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마 26:39).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시키셨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순종으로 판가름이 납니다. 순종은 믿음을 재는 자막대기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예수님처럼 지금 우리는 순종의 제물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아직도 내 뜻을 찾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희생과 순종은 그리스도를 좇는 성도에게 예수님께에서 보여주신 삶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희생 없는 제물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셨습니다.

2. 하나님의 종이 고난받으신 결과

(1) 공의와 사랑이 단 번에 이루어졌다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단 번에 이루어졌습니다. 공의와 사랑이 공존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의를 지키려고 하면 사랑이 깨지는 경우가 있고 사랑을 강조하다보면 의가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공의와 사랑을 한꺼번에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었습니다.

(2) 속죄사업을 완성시키셨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어 돌아가시므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시키는 속죄사업을 완성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자기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고 계셨습니다. 왜 자신이 세상에 오셔야 했는지 아셨고 또한 그 때가 임박하고 있다는 사실도 아셨습니다. 자신이 십자가에 죽음으로 하나님의 일이 완성된다는 것을 아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감추었던 메시아 비밀을 죽기 전에 세상에 밝혀야 할 것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조금씩 계시하시다가 십자가에서 완전히 그를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은 벧바게에 머무셨다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므로 자신이 왕이요 메시아 되심을 사람들의 입술로 호산나 찬송을 부르게 하므로 시인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 날 타실 나귀가 어디에 있고 나귀의 주인이 할 말이 무엇인지도 아셨습니다. 그리스도 앞에 감춰진 것도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그리스도는 구약의 모든 예언을 성취시키셨습니다. 4백년 전 스가랴 선지자는 메시아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것을 예언한바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예언의 말씀을 무시하거나 모르고 있습니다만 예언은 한 마디도 빠짐없이 이루어진 것을 십자가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연구해야 할 뿐 아니라 신중한 자세로 말씀을 믿고 따라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리스도의 겸손을 배워야 합니다. 우아하고 큰말이 아닌 작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들, 특히 지도자들은 이와 같은 예수님의 겸손을 배워야 합니다. 허세와 과욕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는 변하는 세상, 그리고 바뀌는 세상 인심 속에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주님만을 보아야 합니다. '호산나'라고 소리치던 군중들이 4일 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아 죽이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않으십니다. 변치 않는 주님만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나를 위해 고난받으신 주님을 오해하거나 불신하거나 비난하는 자가 아니라 참된 감사와 믿음과 뜨거운 애정을 가지는 사람, 그의 고난에 동참하며 죽도록 충성하는 주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생명의 구주가 되실 뿐 아니라 삶의 모델이십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고난의 종이 되어 맡은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지으시고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셔서 아담을 그 곳에 두셨으나 그가 혼자 사는 좋지 아니하므로 그의 돕는 베벨인 하와를 지어 그와 함께 살도록 하셨습니다.

이처럼 여자와 남자가 만나 가정 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이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나 모르는 남녀가 만나 가정을 이룬다는 것은 평생을 좌우하는 순간의 모험입니다.

영육이 건강한 남자가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 있고 건강한 가정이 건강한 교회와 건강한 나라를 만듭니다.

혼기를 앞둔 크리스천 청년들이라든 누구라도 믿는 자와의 결혼을 꿈꿀 것이고 믿는 자를 만나기에는 선택의 폭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서울 교회는



강남노회에 소속된 믿음의 청년들의 만남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 해가 가기 전에 평생의 반려자를 만날 기회를 갖기 원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만남의 자리를 통해 복음의 가정을 예비 하셨을 것입니다.

만남은 12월 29일 오후 3시입니다.

해당되는 청년들은 부디 기도로 준비하여

이 만남의 자리에 참여하므로 꿈에 그리던 배우자를 만나는 귀한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신청은 서울교회 홈페이지 www.seoulchurch.or.kr로 오거나 혹은 교회 사무국에서 하면 됩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땅예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 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고후 6:14).

-태신자 명단-
(2001년 12월 2일 현재)

- 신상용 박기수 이우금 임동춘 박옥수 이대영 전정혜 한충호 서명선 한덕용 김민지 김기홍 김민성 강용덕 김자영 홍경표 김은혜 이정환 박민우 강현우 이준훈 이계옥 김민애 윤태용 김동원 황민수 차민호 최희영 안진우 제향순 양승환 조정은 김지원 전상자 배수호 정우영 신직수 장영성 김용준 김나연 오우경 박준희 박승호 도희창 이민우 김상현 이종수 이주연 이준국 김동익 홍사성 김준범 이상우 정아영 김준순 류관필 김정순 고상규 전태일 김기운 정의진 김성준 송성희 김순자 이현주 박순록 신한섭 권오성 손명주 정성혜 박재익 정수현 이소정 홍정경 김충렬 이종현 강한섭 박새보미 (다음호 계속)

신용식 집사 (스데반회 간사)

선한 청지기가 되겠습니다.

부족한 저에게 2002년도 스테반회 간사로 일을 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고 연약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제가 스테반회 간사의 직분을 맡게되어 걱정과 두려움이 앞섭니다.

스데반 집사는 죽기까지 하나님께 충성을 다 하였는데, 저는 작은 장애물에도 뒤로 물러서는 연약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면 스테반회 간사의 직분을 은혜스럽게 감당하리라 생각합니다.

아름다운 서울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교육, 전도, 구제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데 때로는 주체가 되고, 때로는 보조기관으로서 믿음의 선한 직분을 충성스럽게 감당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케 해달라고 기도하고, 부끄럽지 않은 일꾼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바른 헌신과 봉사를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스데반회 회원들을 귀하게 여기며 교회의 성도들을 깨끗한 마음으로 섬기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일을 할 때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일해 나가겠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노창훈 (청년부 신임회장)

2002년 한 해 동안 청년부를 위해 일을 맡게 되는 날, 마음속으로는 저의 내년 한 해가 무언가에 꼭 잡힌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새 예배당으로 옮긴 한 해를 보내고 이제 본격적인 하나님의 일을 펼쳐 나가야 할 시기의 청년부를 섬기도록 부름 받았다는, 이 과중한 부담을 떨쳐 버리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청년부는 교회학교에서 차지하는 위치로 볼 때에, 교회에서 준비해 준 것을 받아먹던 시절에서, 이제 교회를 위해 받았던 것을 되돌려주는 것 단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교회적으로도 이러한 역할을 하도록 하는 교회의 기대가 청년부에 걸려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연령층이 말해주듯, 젊은이의 패기와 신명은 있을지 모르나 중년의 안정감과 지속성은 어쩔 수 없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며 어찌 보면 대학시절보다 더 혼란스러운 사회와의 첫 경험과 이로부터 오는 많은 갈등과

혼란, 여기에 이제는 30대를 전후로 하는 적지 않은 나이로 핑계할 수 없는 대외적 위치 등이 복합되어 있는 제2의 질풍노도의 시기를 보내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청년부의 내적인 특성인 삶에 차이가 시작하고, 이제 '학생'이라는 꼬리표를 떼고 독립된 주체로서의 삶을 시작해야 하는 청년부 회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진리에 대한 변함없는 확신을 심어주는 일일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이 빠르면 빠를수록,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의 훈련이 이르면 이룰수록 저희 젊은 날의 정처 없음이 해결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을 연습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2002년에는 청년부 회원들이 예수님과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는 최대한의 기회를 찾는 방향으로 일을 해 나갈까 합니다. 주일 청년예배, 청년부 집회, 그룹성공부회를 통해서, 그리고 교회의 모든 행사에서 각각의 청년부 회원들이 어떠한 방법으로도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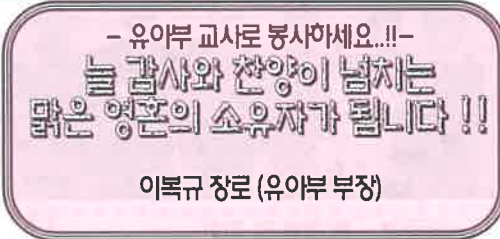
제 자신이 먼저 겸손하게 먼저 진리 위에 바로 서는 훈련을 할 것입니다. 내년 한 해, 청년부를 위해 봉사하도록 사명을 맡겨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사랑을 저의 현실적인 삶을 통해 느끼는 그런 한 해가 되어보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청년부원들이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각자의 삶에서 다가오시는 주님의 세밀한 음성에 오직 순종으로만 나아가는 그런 귀한 체험을 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그려 봅니다.

디모데가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를 통하여 신앙을 양육 받은 것 처럼, 우리 아이들이 잘 양육되기 위해서는 부모는 물론 교사의 신앙이 큰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영·유아 시절의 환경과 교육은 아이들의 평생을 좌우하며, 또한 자녀의 성장은 어린 아기 시절 부모로부터의 영향과 가정환경, 형제들과 아기를 돌보는 사람들과의 인간관계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귀한 하나님의 어린 생명들에게 삶이 시작되는 바로 그 순간부터 처음으로 복음의 그림을 그려 넣는 유아부는 가장 귀하고 중요한 교육부서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아부의 교사가 되면 스스로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같은 마음가짐은 단순한 봉사의 개념이 아닌 하나님께 헌신한다는 것이며, 이로 인해 어린 유아들에게는 깊은 신뢰감과 편안



이복규 장로 (유아부 부장)

함을 줄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또한 유아부의 특성상 가장 깨끗한 영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야 하는 교사는 당연히 맑은 영혼의 소유자가 되도록 노력하게 되고, 하나님으로 인해 늘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생활이 되도록 기도하게 됩니다. 교사의 기쁨 넘치는 생활은 보다 적극적인 헌신으로 이어지게 되고 그것은 그대로 어린 유아들과 그 부모들에게도 전달됨으로서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

입니다.

이같이 노력하고 헌신하기에 유아부의 교사들은 늘 찬양과 감사가 넘치는 맑은 영혼의 소유자들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린 시절 하나님과의 만남은 분명 유아들의 기독교적 인격형성에 중요한 사건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아픔을 치유하시고, 우리의 상처를 싸매 주시는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아이들에게도 이 사실을 알려 주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사명입니다.

유아부에서는 유아들과 그 부모는 물론 교사와 교사 간에 모범과 사랑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노력하며 좋은 영향을 끼칠 교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있으시길 바랍니다.

사명자대회 취재

평생 기도하는 성도- 오직 주만 바라볼찌나...!!!!

서울교회가 창립된 지 10년, 우리 교회가 마치 초대 교회와 같이 따뜻함과 사랑이 넘쳐 나는 것은 지난 10년을 하루같이 교회를 섬기며 충성하시고 항상 기도하고 계시는 우리 권사님들 같은 훌륭한 신앙의 어머니가 계시기 때문일 것입니다.

평소 곁에서 보아온 우리 권사님들은 단아한 외모에 늘 겸손하고 온유한 분들이었으며 부드럽고 다정한 목소리로 신앙의 삶을 가르쳐 주시는 우리 교회의 자랑스러운 모습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 생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잠들기 전 잠시 드리는 취침 기도와 의례적으로 드리는 식사기도를 제외하고는 일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는 우리 대부분의 성도에게 우리 권사님들이 이번 사명자 대회 기간 중 철야기도의 현장에서 보여주시는 모습은 황혼의 아름다움은 비단 밖으로 보여지는 걸모습에서만 풍겨나는 것은 아니며 그 아름다움은 평생을 오직 주만 바라보며 기도하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몸에 배인 믿음의 산물이

라는 것을 보여 주신 것이었습니다.

벌써 4년째 사명자대회 기간에는 하루도 빠짐없이 철야기도를 해오신 ㄴ 권사님, 83세의 고령에 거동이 불편하신데도 50일 동안 철야기도의 끈을 놓지 않으신 ㄷ 권사님, 약해 보이시는 ㄹ 권사님께서도 한번도 자리를 비우지 않으셨다니 놀라울 뿐입니다. 그리고 ㄹ 권사님과 ㄱ 권사님도 늘 함께 하셨더군요...

(결코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길 바라지 않는 권사님들을 생각해 성의 첫 글자만 따왔다- 편집자 주)

마치 나이는 단순한 산술적인 개념일 뿐이라는 것을 증명이라도 하듯 젊은이들도 무색할 열정과 끈기로 50일 동안이나 철야기도를 해오신 이러한 권사님들의 모습이 그저 의무감 내지는 개인적인 위기감이나 현재 구복적인 이유에서 연유한 것이 아니며 온 힘을 다하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그리고 주님이 날마다 기다리시는 영혼들을 향해 기도하고 사랑을 베푸시는 것이기에 모든 성도들이 권사님들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취재, 정리 김시환 (편집부)

대림절 (Advent)

대림절(待臨節) = 대강절(待降節)

"주님을 기다리는 계절"

대림절은 교회력의 시작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계절입니다. 전통적으로 대림절은 2천년전 아기로 탄생하셨던 예수님의 초림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약속대로 다시 오실, 예수의 재림을 기원하면서 긴장과 절제, 그리고 설렘이 교차하는 계절입니다. 대림절의 정점에서는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탄생의 비의(庇義)에 중점을 두고 주로 초림(初臨)을 축하해 왔습니다.

그러므로 아무 생각 없이 그저 대강대강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대림절은 성탄을 준비하는 절기로서 빛으로 나아가는 의미를 가집니다. 이 기간 중 성도들은 내적 생활을 정돈하고 영혼을 정화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마음속에 구세주의 오심을 영접하기 위해서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아야 합니다.

대림절의 색은 보라색으로서 따뜻하고 침착한 기풍을 가진 희망과 동경의 빛깔입니다. 대림절의 시작은 교회마다 조금씩 다른데, 개척교회에서는 성탄절 전 4주간을 대강절로 지키는데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며 마음을 준비합니다.

특히 대림절 기간 중 12월 둘째 주일을 말씀을 세상에 주신 날로 기념하여 전 세계가 성서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새로 왔어요

절제된 열심으로 섬기겠습니다

유기찬 · 윤용미 집사, 유환희(74세), 노순화(71세), 유건호(16세), 유윤지(13세) - 1교구

11월 첫째 주, 새가족 등록실에 다섯 분의 대가족이 들어섰다. 막상 자리에 앉았으나 등록은 보류한 채 유심히 등록과정을 보고 교회소개도 듣고 602호에서 새가족부 프로그램에도 참여한 후 만나홀에서 다른 새가족들과 함께 식사도 했다. 그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 유기찬, 윤용미 집사님 3대 가족 여섯 분(노순화 성도 합류)이 흔쾌히 등록을 하고 목사님과 기념촬영까지 마쳤다.

처음으로 교회 설계를 맡게 되면서부터 사업이 점차 회복되고 지금까지 계속 교회 설계 일을 하고 있습니다. 힘들었던 고난의 시절을 통해 부모님들이 구원을 받고 보람있는 사업으로 전환하는 복을 받게 되었어요. 강남으로 이사 와셔도 아이들이 과외수업 받지 않고도 공부 잘 하고 친구들과 잘 지내며 교회생활도 잘 해 주셔 감사할 뿐입니다.

-드디어 3대가 서울교회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셨군요?

사실은 지난 4월부터 서울교회에서 새벽기도회, 수요예배, 금요기도회에 참석을 해왔고 주일만 전에 섬기던 구로동의 교회에 나갔는데 이 목사님의 말씀도 좋고 10년 기도 끝에 시어머니께서 처음으로 서울교회를 나오셔서 전 교회 목사님께 허락을 득하고 비로소 등록하게 됐습니다.

-신앙생활에 굴곡도 있으셨지요?

결혼 후 믿음을 갖게 되고 순탄하게 살았는데 IMF 경제위기로 설계사무소를 하던 유집사의 사업이 힘들어지고 친구, 형제들과 소원해졌을 때 너무 힘이 들어 양가 부모님들께 교회에 함께 나가서 기도해 주실 것을 부탁 드렸죠. 시어머니를 제외한 세 분이 동시에 교회를 나가게 되었고 열심히 기도해 주신 덕분에 1999년에

-안수집사로서 섬기시다 새로 교회를 옮기신 소감은 어떠세요?

큰 교회라서 등록을 미룬 채 7개월 동안 새벽기도와 예배 참석만 해 왔는데 11월 첫 주에 새가족 등록실을 둘러 교회 소개를 듣고 새가족 프로그램에 참여해 분 뒤 등록을 결심했습니다.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새가족들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던 것이 아쉽기도 하여 하루 빨리 정착해서 저희를 필요로 하는 곳에서 서울교회 봉사자들처럼 절제된 열심으로 섬기고 싶습니다.



동정

■ 이종운 목사는 3일(월) 연세대 연합 신학대학원 졸업감사 예배에서 설교한다.

6일(목) 서울 강남노회 전회장들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갖는다.

☞ 금주의 식사제공: 서춘식 집사 김진숙 집사 가정 자녀 결혼식을 마치고

이종운 목사 방송설교

- 기독교방송(HLKY 98.1MHz)
성서강해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 극동방송(HLXX 1188KHz) 생명은 빛으로
금요일 오전 9시 ~ 9시30분
■ 인터넷방송 (· C3 TV - http://c3tv.co.kr
· 호산나넷 - http://hosanna.tv)
주일 설교

서울 주간기도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임마누엘의 삶되게 하소서
2. 새로 임명될 2002년도 일꾼들을 위하여
3. 병상에 있는 환자들, 실직자, 소외된 자들을 위하여
4. 국가의 안정과 복음화된 통일조국을 위하여

예배 및 집회

Table with 2 columns: 구분 (Division) and 시간 (Time). Rows include weekly services (I, II, III parts) and special services (찬양예배, 수요일예배, 금요기도회, 새벽기도회).

교회약도

